

민주 전남지사 경선구도 오늘 확정

장만채 입당 여부 당 최고위서 최종 결정

신정훈·김영록 “특혜성 영입 입당 반대”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구도가 30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의 민주당 입당 및 경선 참여 여부가 이날 결정되기 때문이다.

입당과 경선 참여가 확정되면 민주당 경선은 신정훈-김영록-장만채 3파전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불허되면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구도를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 전 교육감의 입당 여부가 임박해지면 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은 연일 입당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민주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입당이 보류된 장 전 교육감의 입당 및 경선 참여 여부가 30일 열리는 최고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교육감은 자신의 입당이 보류된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입당과 경선 참여 허용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당과 경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당에 남아 백의중군을 할지, 깃발을 들고 일어설지는 도

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초청강연 등 입당의 발목을 잡은 5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당에 소명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해명했다. 특히 당초 예고됐던 입당 신청 철회도 중앙당의 결정을 촉구하는 선으로 물러섰다.

이를 두고 중앙당으로부터 경선 참여 등 언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 뒤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최고위에 대비해 다양한 루트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장 전 교육감의 입당 여부가 임박해지면 경선 후보들의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29일 경쟁자인 장만채 전 교육감과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만채 전 교육감의 ‘슬그머니 입당’은 용납할 수 없다”

면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본인이 했던 처신과 행태에 대한 분명한 소명, 납득할 만한 반성과 유감표명, 새로운 정치를 위한 자기희생과 역할에 관한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 전 교육감은 중앙당의 결정에 앞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장 전 교육감이 집권여당 민주당에 기여한 것은 없다. 중앙당 지도부는 분명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김영록 전 장관은 공식적인 후보등록 일정과 당규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발상이자, 정치우선, 우위의 전형적인 구태를 되풀이했다”면서 “명백한 반칙이자, 무원칙한 불공평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전 장관도 최근 성명을 통해 “장 전 교육감의 입당 신청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를 전제로 한 입당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특혜성 영입 입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와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과 전남도민의 마음에 돌아킬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검증 152명 통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9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접수자 162명 중 152명이 심사를 통과해 예비후보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시당 공식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중

양당 공직선거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10차례 검증회의를 거쳐 1차로 총 접수자 147명을 적격으로 판단했다.

검증위를 통과하지 못한 15명 중 8명은 부적격 처리됐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

는 부적격 예외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는 부적격 예외판정을 내린 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분당·총선·대선 과정에서 당내 기여도, 본인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최고위원회 의결대상으로 상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원,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광형석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 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검찰은 앞으로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6·13 선거 현장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양혜령 “동구, 민주·인권 성지 발전시킬 것”



양혜령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양혜령이 주장한 광주 동구의 ‘문재인 특구’ 지정은 바로 여기에

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광주 동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주·인권특구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자산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임기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및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광주 동구를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모여드는 민주·인권의 성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임우진 “서구, 최고 혁신자치구 만들겠다”



임우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28일 출마 선언을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양동 발산마을에서 6·13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서구를 문재인 정부 최고의 혁신자치구로 만들겠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서구의 민관협력 복지시스템은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의 교과서가 됐고 주민자치 역시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여는 중요한 선거”라며 “명쾌한 비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 이를 실현할 역량과 행정 경험을 갖춘 후보가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임 청장은 광주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장,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최진 “국내 최고 남구글로벌리더십센터 건립”



최진 더불어민주당 광주남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남구에 국내 최고 수준의 ‘남구글로벌리더십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남구민들의 실질적 역량과 행복 지수를 높여야 한다”면서 “남구글로벌리더십센터는 주로 청년의 취업능력 강화, 여성의 행복 지수 향상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에 있는 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리더십개발원을 광주 남구로 옮겨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는 지난 10여년 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한국리더십개발원은 국내 최고수준의 리더십교육을 실시했는데, 8년 동안 수많은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병내 맞춤형 복지 실현 ‘복지 플러스’ 추진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세대별, 분야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복지 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독거노인, 미혼보 장애인 가정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home help 서비스’를 도입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에 발맞춰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이웃 추천제를 마련해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수혜 영역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문제 및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할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면서 “경제적 취약계층 이웃 추천제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어린이 집 등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3월 28일 중국 산둥성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지수가 999ug/m에 이르고 있어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고 발표했다. 조오섭 후보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르면 가급적 외출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등 7대 요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구조적인 변화없이 개인적인 위생관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한필 “어등산·용진산 시립공원화”



임한필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광산구의 대표적인 명산지 호남의 병행동의 근거지였던 역사적인 장소인 어등산과 용진산을 시립공원화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호남의병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중견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체 등 5개 사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다”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은 호남의병의 역사와 아름다운 천혜자연이 어우러진 스토리텔링을 갖춘 사립, 역사,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수 “광산교육청 원상 회복시킬 것”



장성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청을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광산구 교육 질 향상과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돼야 한다”면서 “광주광역시로 편입될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상 ‘군’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산구’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광산구는 택지 개발, KTX 호남선 개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유입이 예상된다”며 “2009~2015년 유·초·중·고·특수 신선편교 29개교 중 62%인 18개교가 광산구에 신설된 만큼,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임흥빈 신안군수 출마 공식 선언



임흥빈 전남도의회원이 29일 신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5살때 오른쪽 고관절 괴사로 평생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이 됐다. 약자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며 “3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도정에 참여하며 보고 느꼈던 다양한 경험과 경륜으로 신안을 획기적으로 부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의원은 신안발전 공약으로 연륙·연도교 사업 추진, 섬문 발굴로 섬해양관광 메카 육성 등을 공약했다.

/박정욱기자·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다,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더스트 크리너

백필터 / 카트리지가 / 싸이클론 형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터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산 공점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